



숲속 힐링과 함께 지역 명소를 함께 돌아보고 재미있는 야외 액티비티도 즐길 수 있는 휴양림이 인기다. 1 숲속 힐링과 함께 지역 명소를 함께 돌아보고 재미있는 야외 액티비티도 즐길 수 있는 휴양림이 인기다. 2 숲속에서 느끼는 스릴, 제암산자연휴양림의 명물인 짙라인. 3 수도권에서 가까운 청정지역 양평에 있는 산음자연휴양림의 숲속 데크길. 4 미천골 자연휴양림과 함께 즐기면 좋은 남대천 연어생태공원의 갈대군락. 5 국내유일 난대수목원, 완도수목원의 푸른가뭇길을 걷고 있는 여행객. 6 남해 편백자연휴양림 인근에 있는 상주 은모래비치. 사진제공 | 한국관광공사

# 몸과 마음 치유, 사계절 보약같은 휴양림 어때요

아이들 자연체험, 용봉산자연휴양림 대한민국 최대 난대림에서, 완도수목원 트레킹·짙라인 함께, 제암산자연휴양림

를 비롯해 자연정과 공원 세미나, 용봉산 용문사 산책로, 황순원 문학촌 소나무마을의 수숫단 오솔길 등이 멋지다.

지 3개가 있다. 인근에 홍주읍성, 한용운 선생 생가지, 서양화가 고암 이응노 생가기념관이 있다. 서해안을 따라 조성된 천수만 속동전망대와 일몰이 아름다운 굴리포구도 필수방문코스다.

가시가 있다. 최근 개통한 48인승 대형 모노레일을 타고 완도타워에 오르면 완도 읍내와 다도해 풍광이 한눈에 들어온다. 올해 신지도와 고급도를 있는 장보고 대교가 개통하면 고급도와 약산도(조약도)는 물론, 고급대교를 건너 전남 강진이나 장흥으로 향하는 여정이 더욱 쉬워진다.



**여행** 질게 우거진 숲 속을 걸으면 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여행의 재미를 함께 즐기는 휴양림이 인기다. 전국 각지에는 최근 지역의 특색을 잘 살린 개성 넘친 휴양림들이 있어 여행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한국관광공사(사장 정창수)는 6월에 가볼 만한 곳으로 사계절 보약같은 도움을 주는 6지 6색의 휴양림을 선정해 발표했다.

●**동해를 바라보는 숲, 양양 미천골자연휴양림(강원 양양군 서면 미천골길)**  
백두대간 구룡령 아래 자리한 미천골자연휴양림은 바다와 인접해 두 곳을 동시에 즐기기에 좋다. 울창한 숲에서는 불바라기 약수터와 시원한 바람이 부는 계곡이 매력적이다. 양양 바다 쪽 해담마을에서는 수목양용자동차를 즐길 수 있고 송천 뚝마을에서 전통 방식으로 만든 떡도 맛볼 수 있다. 남대천 연어생태공원과 동해를 바라보는 낙산사도 빼놓을 수 없다.

●**숲속 트레킹과 짙라인, 보성 제암산자연휴양림(전남 보성군 웅치면 대산길)**  
힐링과 자연 속 스릴을 함께 느낄 수 있다. 능선을 넘나들며 숲길을 걷는 무장에 산악 트레킹 코스 더듬길은 5.8km 전 구간이 평평한 데크여서 남녀노소 거닐기 좋다. 여유로운 트레킹 코스와 함께 스틸 낚시는 짙라인과 예코 어드벤처도 있다. 보성의 새로 온 랜드마크 북재, 간이역에서 일약 추억여행 명소가 된 득량역 광주 이씨 집성촌 강골마을을 함께 돌아보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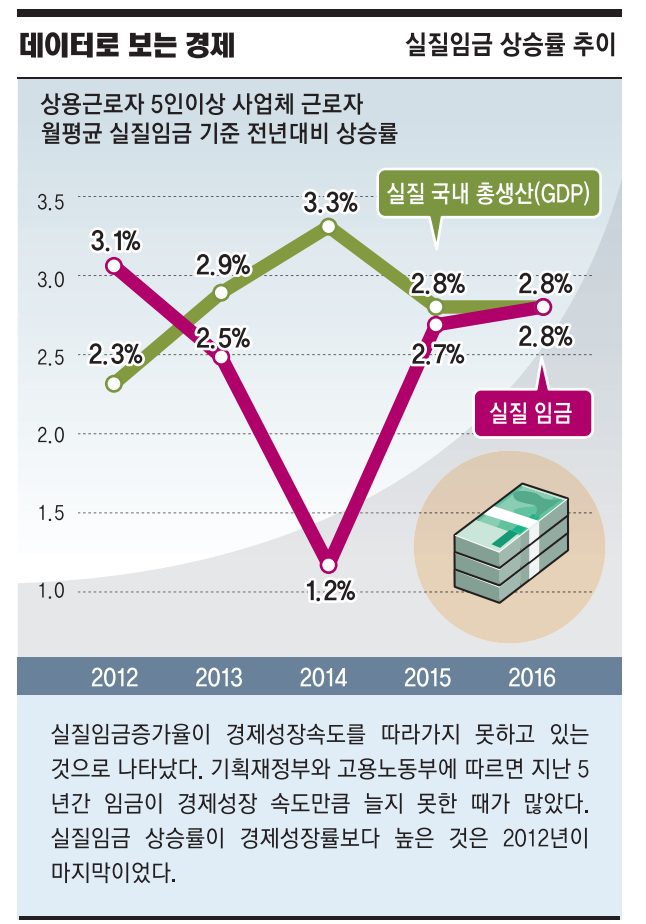
●**피톤치트의 낙원, 남해편백자연휴양림(경남 남해군 삼동면 금암로)**  
227ha에 이르는 편백과 삼나무숲의 피톤치드가 자랑이다. 피톤치드는 특유의 살균효와 덕분에 아토피를 비롯한 피부 질환에 좋고, 신경계를 안정시켜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정신을 맑게 해준다. 특히 편백은 피톤치드를 가장 많이 방출하는 나무로 알려졌다.

●**북한강과 남한강 만년 두물머리, 양평 산음자연휴양림(경기 양평군 단월면 뚝고북길)**  
산음자연휴양림은 다른 지역의 휴양림에 비해 화려한 모양을 자랑하지 않는다. 하지만 오밀조밀한 숲과 주변의 경관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수도권에서 가까우면서도 맑은 물과 자연 등 청정지역의 매력을 느낄 수 있다.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두물머리

●**아이들 자연체험 최고, 홍성 용봉산자연휴양림(충남 홍성군 홍북면 용봉산2길)**  
해발 381m의 용봉산 기슭에 있다. 산이 높지 않아 가족 단위 여행객에게 인기다. 아이들을 위한 자연체험 공간도 있다. 숲해설가가 동행하는 체험 프로그램은 늘 인기여서 예약을 서둘러야 한다. 등산로는 2시간 코스부터 3시간30분이 걸리는 중주 코스까

●**대한민국 최대 난대림, 완도수목원(전남 완도군 군외면 초평1길)**  
1991년에 문을 연 우리나라 최대의 난대림 자생지이자, 국내 유일 난대 수목원이다. 붉가시나무와 구실잣밤나무 등 상록수가 주를 이루고, 완도를 대표하는 완도호랑

인근에는 폐교를 예술 공간으로 바꾼 해오름예술촌, 은빛 모래사장이 아름다운 상주 은모래비치, 바닷길이 갈라지는 장관의 문향 여촌체험마을, 이순신 장군 가묘가 있는 남해 총렬사 등이 있다.



## “여성혼행족만 오세요” 모두투어 전용 여행상품 출시

여성 인솔자 동행...아울렛 쇼핑 등 특화 혼자 여행하는 ‘혼행족’이 최근 해외여행의 트렌드로 자리잡은 가운데 여성 혼행족을 위한 전용 유럽여행 상품이 나왔다. 모두투어네트워크(이하 모두투어)는 여성 고객만 예약 가능한 ‘인솔자와 함께 하는, 혼자만의 이탈리아 8일’을 론칭했다. 이름 그대로 여성 혼행족에 맞춘 기획상품이다. 밀라노에서 시작해 베로나, 베니스, 피렌체 로마 등 5박8일 일정으로 이탈리아를 여행한다.

세부 프로그램도 철저하게 ‘여성’ 맞춤형으로 구성했다. 베니스 부라노섬 스냅사진 촬영을 비롯해 피렌체 아울렛 쇼핑, 키안티 지역 와이너리 투어, 전 일정 1인1실이고 최대 인원을 20명 이하로 제한했다. 특히 모든 상품은 여성 전문 인솔자가 동행한다. 8일부터 10월26일까지 운영하며 항공편은 캐세이퍼시픽이다.

## K쇼핑, 제2기 쇼핑호스트 공개 모집

22일까지...학력·신입·경력 제한 없어 KTH가 운영하는 T커머스 K쇼핑이 22일까지 ‘제2기 쇼핑호스트’를 공개 모집한다. 학력 제한없이 신입과 경력 모두 지원 가능하며, 카메라 테스트 및 실무 면접을 거쳐 임원 면접 후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지난해 1기를 선발했는데, 지원자 약 480여명 전원에게 오디션 기회를 제공하는 파격적인 절차를 선보였다. 쇼핑호스트로서의 역량을 마음껏 뽐낼 수 있다는 점에서 지망생들의 열렬한 호응을 얻은 바 있다.

## 11번가 신선식품 주요고객은 경기도민

SK플래닛 11번가는 최근 5개월(1월1일~5월31일)간 신선식품 구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국 17개 시도 중 경기도에 거주하는 고객수(33.5%)가 서울시(31.5%)보다 많다고 7일 밝혔다. 249개 시군 중 신선식품 이용 고객이 밀집된 지역은 강남구(3.5%), 송파구(2.6%), 화성시(2.5%) 순으로 조사됐다. 판매 현황을 보면 매출 비중이 높은 품목은 농산(60%), 축산(24%), 수산(16%) 순이며, 성별로는 여성과 남성 고객이 6대4 비중을 나타냈다. 또 30대(40%), 40대(31%), 50대 이상(15%), 20대(14%) 순으로 고객 비중이 높았다. 신선식품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월 평균 주문 건수(5.7건)는 11번가 전체 고객들의 주문 건수(2.5건)보다 많았다.

## ‘성지순례’ 한류 팬에게 우리는 감동을 주는가

### 취재파일

지금쯤 여행레저 담당이지만, 예전 그 기간의 몇 배가 되는 시간을 연예계자로 있었던 이력 때문에 가끔 한류관광에 대한 조언 또는 문의를 받는다. 대개 외국 한류 팬을 데리고 갈만한 곳이나 그들이 즐길만한 것에 대한 질문이다. 어렵게도 그동안 만족할만한 대답을 해주지 못했다. 맹색이 전직 연예계 자이자 현직 여행레저 담당임에도 추천해 줄 곳이 딱히 떠오르지 않기 때문이다. 답

답해서 여행업계에 관련 기관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도 “아, 거기...”하고 감탄할 만한 추천을 받은 적도 거의 없다. 물론 서울 명동이나 강남에는 K-POP을 비롯한 한류 스타들의 이미지나 각종 상품(굿즈)을 파는 가게들이 즐비하다. 대형 기획사에서 직영하는 큰 점포도 있다. 지방에는 ‘태양의 후예’, ‘도깨비’ 같은 인기 드라마의 촬영지를 내세우는 지역도 있다. 그중 좋아했던 드라마나 음악의 감흥을 다시 느끼려 찾아온 한류 관광객에게 새로운 감동이나 재미를 선사하는 것은

어렵게도 많지 않다. 대부분 알약한 상흔의 의미없는 기념품이거나 한류 팬이 무엇을 원하는지는 관심도 없는 대외파시적인 전시행정의 결과물들이다. 관광산업의 주요 동력으로 ‘한류’를 거론한지도 몇 년이 지났다. 그런데 한류 관광 콘텐츠에 대한 인식은 촬영용 임시설인 세트장을 관광상품으로 자랑스레 내세우거나 서울 강남대로에 보기 민망한 싸이 손모양 조형물을 만드는 수준에서 나아가질 못했다. 우리는 팀 이름도 구분하기 힘든 여러 아이들의 안무를 최신팍까지 달달 외고,

그 어렵다는 한국어 가사도 유창하게 발음하는 그들이 한국어로 ‘성지순례’를 왔을 때 과연 손잡고 어디로 가야 좋을까. 유튜브로만 즐기던 그들이 영상이 아닌 ‘레알’로 흥분과 열정을 즐기길 바랄 때 어디를 말해줘야 할까. 엘비스 프레슬리 팬이라면 생전에 꼭 한번 가보기를 원하는 미국 멤피스 그레이스랜드나 영국 리버풀 비틀즈 투어 수준은 기대하질 않는다. ‘윌피스’에 나오는 해적선 고임메리호를 실물 크기로 재현해 만화와 애니메이션을 흥분케 하는 일본 정도의 정성이 아니어도 좋다. 비싼 비행기 요금과 숙박료를 내고 어렵게 찾았은 그들에게 감동은 못주더라도 최소한 실망은 주지 말자.

## ‘노브랜드’ 새 상생 모델 선보인다

7월 안성맞춤시장 내 상생 스토어 개설 신선식품·국산주류 제의 등 동반성장 골목상권 침체 꼬리표 뺀 방향제시

설명이다. 노브랜드는 이마트의 자체브랜드(PB)상품이다. 마케팅 등의 비용을 줄여 상품가격을 낮췄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하지만 노브랜드 상품만 따로 모아 파는 노브랜드숍이 등장하면서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변종 기업형슈퍼마켓(SSM)이란 비판도 받아왔다. 새로운 형태의 상생 스토어가 전통시장, 동네마트와 공존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할지 관심을 모으는 이유다. 이마트는 기존에 화인마트가 갖고 있던 700평(2314㎡) 영업 면적 중 210평(432㎡)을 임차해 노브랜드 상생 스토어를 연다. 여기에 어린이회관놀이터(45평)와 고객센터(20평)도 포함돼 있다. 화인마트의 영업면적 중 약 30%만 임차하는 것이지만 보증금과 임차료는 50%를 책임질 방침이다. 더 나아가 과일과 채소, 수산물, 육류 등 신선식품과 국산주류, 담배 등을 판매 품목



**유통** 이마트의 ‘노브랜드’가 전통시장과 새로운 상생 모델을 선보인다. 이마트는 7월 안성시, 안성맞춤시장, 화인마트와 함께 노브랜드 상생 스토어 개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상생 스토어는 7월 안성맞춤시장 지하1층에서 영업 중인 화인마트와 공간을 나눠 쓰는 방식으로 들어설 예정이다. 노브랜드 상생 스토어 개점은 지난해 8월 당진 어시장에 이어 두 번째다. 특히 한 걸음 더 나가 동네마트와 이마트가 공존하며 전통시장으로 고객 유입을 유도한다는 것이 이마트 측의



당진 어시장에는 지난해 8월 개점한 이마트 ‘노브랜드’ 당진상생스토어가 영업 중이다. 사진제공 | 이마트

에서 제외해 전통시장 구성원들과 동반성장 발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안성맞춤시장은 지상 1~2층, 지하 1층 총3개 층으로 구성돼 있는데 고객이 줄어들면서 현재 2층 전체가 공실인 상황이다. 상권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안성시가 올해 2월부터 이마트와 협업해 전통시장, 동네마트 등 시장 구성원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상생 스토어 모델을 개발했다는

것이 이마트 측의 설명이다. 이갑수 이마트 대표는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들을 위해 이마트가 갖고 있는 브랜드와 노하우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며 “1회성 상생을 넘어 지속 가능한 새로운 유통 상생 모델을 제안하고 동반성장의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전통시장을 꾸준히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